

2024학년도 모의논술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2024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2024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창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 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과 비판 능력, 논술논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4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 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또한 전년도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와 일관되게, 수험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불평등’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고 <생활과 윤리>, <경제>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또한 이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이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 1]의 제시문은 관련 학자의 글 등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 변형하거나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1> 『베버패러다임 교육사회학의 구상: 교육현상의 이해와 인본주의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오욱환, 2010)

<제시문 2> 『학교와 사회』 (Feinberg & Soltis 저, 이두휴, 고희일 역, 2012)

<제시문 3>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Sen 저, 정미나 역, 2015)

<제시문 4> 『맹자』 (이천승, 2022)

[문제 2]의 <자료 1>과 <자료 2> 역시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3]은 [문제 1]에 제시된 주요 논지와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평가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③,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문항별 배점

- [문제 1] : 40점
- [문제 2] : 40점
- [문제 3] : 20점

○ 채점등급별 점수

[문제 1], [문제 2]

- ① A 등급: 40점
- ② B 등급: 32점
- ③ C 등급: 24점
- ④ D 등급: 16점
- ⑤ E 등급: 8점
- ⑥ F 등급: 0점

[문제 3]

- ① A 등급: 20점
- ② B 등급: 16점
- ③ C 등급: 12점
- ④ D 등급: 8점
- ⑤ E 등급: 4점
- ⑥ F 등급: 0점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문항별 세부 채점지침과 채점등급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 채점지침 】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능력주의를 배격하고 불평등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불평등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요약했다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1]의 <제시문 1>, <제시문 3>은 능력주의의 한계와 불평등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불평등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주제는 사회계층분화, 갈등론 대 기능론, 능력주의 등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 고등학교 교과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친숙한 주제이므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1>은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등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 및 사회 갈등 요인들을 논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국가의 기본제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하여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치권력이 기득 집단에 편중되고, 그에 따라 기득 집단이 미득 집단을 정치적으로 배제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결정이 왜곡된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교육에도 전이되어 부유층 자녀들은 특권을 누리고 빈곤층 자녀들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된다. 고학력과 명문 학벌은 학력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장치로 이용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한다. <제시문 3>은 경제적 세계화의 맥락에서 세계화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논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경제적 세계화가 극빈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명백한 축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세계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확립이나, 기초 교육 확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기회 제공 등과 같은 문제보다는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시장의 확대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시장의 세계화에 불과한 세계화는 국가 간 불평등은 물론,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건이 취약한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세계화 운동은 세계 번영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접근법이며, 자국 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여러 부유한 나라들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세계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세계 정의를 위해 이행해야 할 책무들은 각 국가가 이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반면에 <제시문 2>에 따르면 사회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잘 기능할 수 있다. 모든 사회는 구성원들의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과업을 수행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적절한 자질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그에 따라 보상도 더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재능에 대한 보상은 근대화의 필요조건이며, 능력과 재능에 입각한 선발 장치를 통해서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함으로써 가족이나 인종, 성, 종교 등과 같은 귀속적 특성에 따른 불공평 분배를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의 능력 차이에 따른 사회 불평등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질서 안에서 사람들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능률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사회의 기능을 증진할 수 있다. <제시문 4>는 진상과 맹자의 대화를 통해 사회의 계층 분화 및 그에 따른 불평등 현상이 지니는 기능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맹자는 세상에는 대인(大人)과 소인(小人)의 일이 각기 구별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를 하는 대인의 일은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마땅하고 소인은 생업에 종사하는 데 수고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화를 옹호한다. 그리고 남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니고 정치로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생업에서 힘으로 애쓰는 자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소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어 대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원리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채점등급 】

-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들 간의 차이점까지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간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종합한 두 입장의 핵심 논지가 충실히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충실하지 않은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문제 2] A국과 B국을 비교하는 <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¹⁾

주1) 자료에 제시된 내용 외에 두 국가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 채점지침 】

[문제 2]에서는 두 개의 자료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자료를 해석하여 두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을 [문제 1]의 불평등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각 자료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해석하고 각 자료에 나타난 현상이 [문제 1]에 등장한 상반된 두 입장과 관련됨을 추론해야 한다. <자료 1>은 두 국가 A와 B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경제지표의 5년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두 국가의 경제지표에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러한 차이가 [문제 1]의 불평등에 관한 어느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B국은 A국보다 높은 국민소득과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허개발 건수와 혁신기업 창업 수, GDP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을 통해 두 국가의 성장 잠재력 역시 A국보다 B국이 우월함을 알 수 있다. 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A국에 비해 B국은 신기술의 개발과 투자에 더 적극적이고 그 결과 특허개발과 혁신기업 창업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와 일관되게 B국은 A국에 비해 국가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가 높고 향후 5년간 국민소득의 연 성장률 전망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료 2>는 같은 기간 두 국가의 사회지표를 보여준다. 이 자료를 통해 양국의 다중격차(즉,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차이) 수준이 다르며 사회 안정 지표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자료 2-1>의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A국은 소득분위에 따른 대학 진학률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B국은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률이 높다. 이를 통해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B국이 A국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2-2>에서는 두 국가의 사회 안정 지표를 보여주는데, 이 중 소득 집중도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통해 B국에서 나타나는 다중격차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집중도는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이 전체 국민의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로, 양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준다. 소득집중도는 A국에 비해 B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더 심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B국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이 A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료 2-2>는 두 국가의 생계형 범죄 발생 건수와 국가 정책 신뢰지수를 통해 국가 내의 갈등 양상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생계형 범죄 발생 건수는 A국에 비해 B국이 많으며, 국가 정책 신뢰도는 A국에 비해 B국이 낮다. B국은 A국에 비해 사회 내의 갈등 및 불안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 사회가 분열된 양상을 보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한다. 따라서 <자료 2-1>과 <자료 2-2>로부터 사회에 존재하는 소득, 교육, 주거의 다중격차 양상과 사회 내의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문제 1]의 두 입장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에서 A국과 B국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추론할 수 있는 특허, 혁신기업 창업, 연구개발(R&D) 투자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며, 그 결과 글로벌혁신지수나 국민소득 연성장률 전망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국은 A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허개발과 적극적인 창업 및 R&D 투자를 통해 국가의 글로벌혁신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성장 전망치 역시 A국에 비해 높다. 다른 한 편으로, <자료 1>에서 경제발전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지표에서 B국이 A국에 비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주거, 교육의 다중격차가 심화된 사회인 B국에서 범죄, 국가 정책 불신과 같은 사회불안 요인들이 A국에 비해 심화되어 있음을 <자료 2>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문제 2]의 <자료 1>과 <자료 2>는 [문제 1]의 사회의 불평등을 바라보는 두 관점을 각각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자료에서 불평등의 양상과 불평등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답안의 포인트는 [문제 2]에서 제시된 세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여 [문제 1]에서 분류한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는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시문 2>는 능력과 재능에 따른 보상의 차이는 근대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며 오히려 귀속적 특성에 따른 불공평한 분배를 막는 장치로 작동함을 강조하고 있고, <제시문 4>는 능력에 따라 구별된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곧 사회의 기능을 증진하는 원리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A국에서 관찰되는 사회현상을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는 <자료 1>에서 A국은 B국에 비해 특허개발과 혁신기업 창업,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저조하고 글로벌혁신지수 순위 역시 낮은 점을 들 수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B국은 이러한 능력과 재능에 따른 사회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A국은 이러한 투자에 소극적이며 그 결과 국가의 경제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국이 B국보다 향후 5년 국민소득 성장 전망치가 낮은 점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문제 1]에서 능력주의를 배격하고 불평등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제시문 1>과 <제시문 3>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다.

반면에, [문제 1]의 <제시문 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과 주거와 같이 여러 지표에서 다중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자료 2>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B국은 A국에 비해 비록 경제발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다중격차가 심화되어 있으며, 높은 생계형 범죄율과 저조한 국가 정책 신뢰도 등 사회 안정 지표에서 A국에 비해 불안 요인이 크게 존재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문제 1]에서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불평등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제시문 2>와 <제시문 4>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다.

<자료 1>로부터 불평등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과 일치하는 경제지표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료 2>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거나, <자료 2>에 나타난 불평등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어 불평등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또한 [문제 1]의 제시문 문구를 단순 반복하는 수준에 벗어나 세 자료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채점등급 】

- A :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 답안
- B :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서술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서술의 적절성이나 충분성이 부족한 답안
- C :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나 자료의 내용과 [문제 1]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 답안
- D : <자료 1>과 <자료 2>의 일부만 정확하게 해석했거나,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잘못 연결되었거나,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만 비판한 불충분한 답안
- E :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해석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을 비판하는 논리가 부적절한 답안
- F :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해석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을 비판하는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문제 3] C국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자의 학력에 따라 특별취업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을 고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과 저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해야 한다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중 본인은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 채점지침 】

[문제 3]은 능력주의를 배격하고 불평등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불평등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중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그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특별취업지원금을 저학력 실업자와 고학력 실업자 중 어느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배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를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 1]의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능력주의의 한계와 불평등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불평등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 2]의 <자료 1>은 주요 경제지표에서 A과 B국의 차이를 보여주며, <자료 2-1>과 <자료 2-2>는 교육, 소득집중도, 주거환경, 범죄, 정부신뢰 등의 차원에서 두 국가의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들을 보여준다. 이 자료들을 통해 A국은 B국에 비해서 경제 성장 잠재력이 낮고, B국은 A국에 비해서 소득, 주거, 교육의 다중격차가 심화된 사회이며 사회불안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문제 3]에 답을 함에 있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허개발과 적극적인 혁신기업 창업 및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가의 글로벌혁신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달성하고, 높은 국민소득과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는 B국의 자료가 불평등에 관한 기능론적 관점과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자료임을 인식하고, 특별지원금을 고학력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소득, 주거, 교육의 다중격차가 심화된 사회인 B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불안 요인들을 불평등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하여 저학력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고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문제 1]의 <제시문 2>와 <제시문 4>, [문제 2]의 <자료 1>과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해야 한다. 즉, 사회는 구성원 각자의 능력에 맞는 기능과 역할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고학력 실업자의 취업이 공동체나 한 국가의 경제에 공헌하는 정도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문제 1]의 <제시문 2>, <제시문 4>를 토대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문제 2]의 <자료 1>을 토대로 경제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특허개발, 혁신기업 창업,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을 높이고 높은 국민소득수준과 낮은 실업률을 달성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실업자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배분하여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저학력 실업자에게 지원금을 더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주장을 [문제 1]의 <제시문 1>과 <제시문 3>, 그리고 [문제 2]의 <자료 2>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논술해야 한다. 즉, 경제적 자원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분산시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부와 자본의 편중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된다는 [문제 1]의 <제시문 1>의 주장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자유경쟁과 능력주의 원칙 하에서 실업의 피해를 더 크게 받는 저학력 실업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문제 2]의 <자료 2>를 토대로 사회의 계층분화와 다중격차는 결과적으로 B국에서 빈발하는 생계형 범죄와 낮은 국가 정책 신뢰도와 같은 사회불안의 요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사회 계층간 갈등이 궁극적으로 공동체에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학력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3]의 핵심은 학생들이 본인의 선택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문제 1]의 일반 논리와 [문제 2]에 제시된 자료를 특별취업지원금 배분이라는 특수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여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이다. 또한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포함한다면 논제의 조건에도 맞고 풍부한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 채점등급 】

- A : 재취업을 위한 특별취업지원금을 누구에게 더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반된 입장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 B : 특별취업지원금의 배분에 대한 상반된 입장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다소 미흡한 답안
- C : 특별취업지원금의 배분에 대한 상반된 입장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본인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 특별취업지원금의 배분에 대한 상반된 입장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를 잘 못 연결하여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 E : 특별취업지원금의 배분에 대한 상반된 입장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 E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